

2009 신성장동력 박람회 개최

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.

지식경제부와 미래기획위원회는 5월26-28일 일산 킨텍스에서 <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>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.

<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 희망동력입니다>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박람회는 3대 분야 17개 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.



정부는 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신·재생 에너지, 탄소저감 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 6개, 방송통신융합, 로봇 응용 등 첨단융합산업 6개, 글로벌 헬스케어 등 고부가서비스 분야 5개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확정했다.

박람회는 개막식, 전시회, 국제컨퍼런스, 투자설명회 등으로 구성된다.

개막식에서는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 박사가 <초우량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>, 최태원 SK 회장이 <신성장동력!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>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.

국제컨퍼런스에서는 지멘스코리아 조셉 마일링거 사장이 <다국적기업이 추구하는 녹색성장>,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기업 트레이퍼 피셔의 페리 하 사장이 <신성장동력 : 대한민국과 실리콘밸리> 등에 대해 발표한다.

전시회에는 녹색기술, 첨단융합, 고부가서비스 관련 17개 전시관을 비롯해 민관이 함께 만든 583개 부스가 마련되며, 투자설명회에서 정부는 신 성장동력 펀드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, 인재양성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9/05/12>